

광주 청년들, 저마다의 '오월'로 다시 만난다

지난해 '오월 담론장'을 열었던 광주 청년들이 올해에도 5·18로 '연결되는 저마다의 '오월'로 다시 만난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청년들의 5·18민주화운동 이야기를 담은 '비연결, 연결, 재연결' 전시가 이날부터 오는 24일 남구 양림동 호랑가시나무 아트플리곤에서 열린다.

이들은 청년 누구나 5·18을 이야기할 수 있는 담론의 장인 '작지만 소란한 공론장'도 연다.

5·18민주화운동기념행사위원회 시민 공모 사업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인 최진용 사진작가와 김꽃비 문화기획자가 협업했다.

전시는 5·18이 현재 광주 청년들의 삶에서 어떤 의미이며 오월을 통해 어떻게 다시 세상과 재연결되는지에 대해 다룬 '연결을 향한 기록의 여정'이다.

특히 '연결'을 상징하는 색색의 필사를 들고 카메라 앞에 선 청년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작품

양림동 호랑가시나무 아트플리곤서

5·18 조영 '비연결, 연결, 재연결'展

전시 연계 '작지만 소란한 공론장'도

들이 인상 깊다.

이번 작업에 참여한 최진용 사진작가는 자신의 오월 이야기를 들려주며 작품을 보는 관객들로 하여금 스스로 '내게 5·18은 어떤 의미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한다.

이처럼 이번 전시는 '민주·인권·평화'라는 5·18 가치에 공감하되 저마다의 삶에서 다양한 색깔로 빛나는 5·18의 현재적 가치를 탐구한다.

교과서에서 배운 5·18을 넘어 송고와 부재감 사이의 의미를 넘어 광주에서 살아가고, 일상으로 금남로를 거닐고, 직장과 학교에 다니는 지극히 평범한 광주청년들이 마주하는 오월에 주목한다.



오월 광주를 유산으로 물려받은 광주 청년들의 5·18민주화운동 이야기를 주제로 한 '비연결, 연결, 재연결' 전시가 오는 24일까지 광주 남구 양림동 호랑가시나무 아트플리곤에서 열린다. <광주시 제공>

연결되지 않던 청년들이 저마다의 삶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5·18과 연결되며 재연결을 통해

흐릿하나 선명한 자신의 색깔을 드러낸다. 전시 연계 프로그램인 '작지만 소란한 공론장'

도 마련된다. 오는 23일 오후 7시 호랑가시나무 아트플리곤에서 '연결된 나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오월광주를 유산으로 물려받은 광주 청년들이 생각하는 5·18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5·18로 연결된 '나'의 재발견을 통해 '오월정신이란 무엇인가'라는 추상적인 질문이 현재 '나'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 다룬다.

김꽃비 문화기획자를 좌장으로 최진용 사진작가, 김혜선 5·18기념재단 글로컬센터, 박재상 마을청년활동가가 패널로 참여한다.

이들은 지난해에도 '모두를 위한 오월공론장 만들기 프로젝트'인 '에브리씽 메이 올댓원스'를 기획해 광주 청년들의 오월 담론장을 열었다.

오늘날 청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혐오와 차별 지양, 공정사회, 다양성 존중과 연대의 가치가 5·18과 밀접하게 연결된다고 보고 오월정신을 창의적으로 재해석해 발견하는데 중점을 뒀다. /변은진기자



광주시립미술관 야외물놀이장 19일 첫 개장

중의공원 생태예술놀이정원

내달 17일까지 초등생 이하 무료

광주시립미술관이 북구 중의공원 내 새롭게 꾸며진 생태예술놀이정원에 물놀이장을 조성, 오는 19일 최초로 개장한다. <사진>

생태예술놀이정원은 광주시가 지난해 9월 완료한 아시아예술정원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됐다.

평상시에는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놀이공간으로 이용되며 여름철에는 물놀이장으로 변신해 계절별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물놀이장은 고무 탄성 재질의 풀장(358㎡)과 도룡뇽조형물이다, 물놀이시소, 해바라기사위

등 다양한 놀이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물놀이장 수심이 20cm로 얕고 안전해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위 시민들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19일 첫 개장에 8월17일까지 한 달간 운영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단, 매주 월요일과 우천 시에는 휴장한다. 이용 대상은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이며 이용료는 무료다.

시립미술관은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을 이수한 4명의 안전요원을 현장에 배치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 매일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해 물놀이장을 운영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물놀이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변은진기자

목포 남향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 거점 속도

도, 기술개발 공모 3건 선정...846억 확보

전남도가 정부의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공모 사업을 잇따라 유치, 목포 남향에 추진 중인 친환경 연안선박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전남도는 16일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2025년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공모사업에 3건이 선정돼 총 846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사업은 ▲녹색해운항로 구축 탄소중립 선박연료 공급기술 개발(265억원) ▲친환경 연료 화재폭발 안정성 평가 및 대응설비 개발(302억원) ▲상반회전 추진시스템 기반 중대형 선박 전기추진시스템 개발(279억원) 등이다.

이를 통해 전남도가 2020년부터 역점 추진한



목포 남향 연구인프라 조감도.

친환경 연안선박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본격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2020년부터 목포 남향 일원 친환경 연안선박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수립, 전기추진 차도선, 이동식 전원공급 시스템 개발, 친환경 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실증, 재생에너지 기반 여객선 효율향상 기술 개발, 친환경선박용

전기추진 시스템 시험평가 기술 개발 등 친환경 선박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총전시협동과 관제유지보수시험등을 완공한 데 이어, 올해 말까지 친환경연료연구동, 국제협력 및 복지동, 전력시험동 등 육상 연구지원 인프라를 완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친환경 연료추진연구센터'도 목포 남향으로 이전을 앞두고 있어 연구개발 중심지로서 기반이 더욱 견고해질 전망이다.

김기흥 전라산업국장은 "탄소중립과 해양에너지 전환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이번 공모 선정은 전남이 친환경선박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기술 개발과 인프라 완성에 힘써 전남이 미래 친환경선박 생태계를 주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시원기자

전남도, 재산세 1천842억 부과...전년비 2.6% ↑

여수 409억 최다...순천·광양 뒤이어

전남도는 16일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90만 건 1천842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올해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47억원(2.6%) 증가했다. 개별주택가격 상승(1.83%)과 택지 개발을 통한 신축 주택과 건축물 증가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2개 시·군 가운데 7월 재산세 부과액이 많은 지역은 여수시(409억원)다. 이어 순천(250억원), 광양시(247억원), 목포시(188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부과액이 가장 적은 지역은 신안군으로 14억원이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주

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건축물·선박·항공기분, 9월에는 토지·주택(1/2)분이 부과된다. 단 재산세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주택은 7월에 전체가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박성열 세정과장은 "재산세 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편리한 방법을 이용해 기한에 맞춰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시원기자

자연도, 부모님도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 사용기한 없음 / 365일 관리 / 광주에서 20분 / 무료 안치

광주수목장 문의 062.449.4446